

AUTHOR 이숙경

TITLE J.Calvin과 J.Wesley 목회신학의 중심구조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의 원리

IN 신학과 선교, NO.5 (2001)

ACTS 神學과 宣教

J. Calvin과 J. Wesley
목회신학의 중심구조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의 원리

이숙경(기독교교육학)

1. 문제제기

현대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기독교의 독자성과 배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독교가 중심진리로부터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한철하 박사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에게 기독교 신학이 처한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작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신학은 인간 사유의 유희나 또는 부분적 진리에 천착해 들어가며 중심진리를 잃어버리는 오류를 더 이상 계속 하지 말고 “*sola fide*”의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박사는 “*sola fide*”라는 기독교 중심진리는 칼빈에 의해 구조화되고 웨슬리를 통해 그 맥을 이어 구현되고 있다고 보며 현대 신학자들이 이들의 신학에 대한 공관을 통해서 각 신학의 분야에서 기독교의 중심진리에 기초한 방법론을 세워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칼빈과 웨슬리가 단순히 신학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신학의 참된 목적인 신앙을 세우는 일에 기여하였던 것과 같이 현대 신학도 궁극적으로 참된 신앙적 변화를 추구하는 학문적 작업을 이루어 갈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대 기독교교육의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기독교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참된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독교교육의 본질적인 원리들이 퇴색하고 교육활동의 부차적인 요소들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교육이 그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바른 신학적 기초의 회복이라고 본다.¹ 따라서 기독교의 중심진리인 “*sola fide*”로 돌아가

1. 한철하, “2001년 세계한인신학자대회 관계 논문,” ACTS.(미간행)

2. 이러한 문제제기는 신학적 입장 to 초월하여 많은 기독교교육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이 문제를 기독교교육의 본질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그 위에 방법론을 세우고 기독교교육의 목적과 원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은 기독교교육의 정체성을 기독교의 중심진리 위에 세우는 작업의 일환으로 칼빈과 웨슬리 목회신학의 중심구조를 살펴보고 그 구조에 기초하여 기독교교육의 원리들을 논의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칼빈과 웨슬리 목회신학의 중심구조

2-1. 목회신학의 중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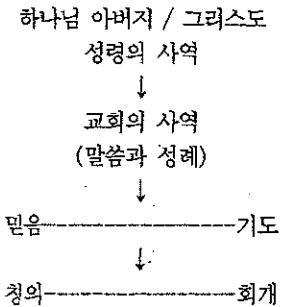
기독교의 중심진리는 한마디로 이신득의(以信得義, *justificatio sola fide*)라고 할 수 있다. 즉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중심진리는 칼빈과 웨슬리 뿐 아니라 성경과 종교개혁을 비롯한 교회사의 복음주의적 전통 속에서 확증되는 것이다.³

기독교의 목회활동 및 학문활동은 바로 이 중심진리에 기초할 때 기독교적 정체성을 견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활동의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들은 기독교의 진리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이나 목회활동은 기독교의 중심진리 위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 된다. 한철하 박사는 칼빈이『기독교 강요』에서 정리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1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어(제2권) 그 은혜의 복음을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심으로(제4권) 죄인들이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중생하여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일(제3권)”이라는 것이다.⁴ 이 진리내용을 목회 즉 교회의 사역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⁵

3. 한철하, “신학의 과학성” KETS 제 31차 발표회(1998).

4. 한철하,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신학공판’제안”『성경과 신학』 21권(1997), 9.

5. 위의 그림은 한철하 박사에 의해 정리된 “칼빈의『기독교강요』의 구조적 도표”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목회사역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목회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방법론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목회의 목적은 칭의와 회개이다. 즉 목회를 통하여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우리 안에서 구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가 바로 목회방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방법들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적절성과 효과가 검토되어야 한다.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핵심적인 목회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이며 이 일을 행하도록 계획된 것이 바로 교회와 직분을 받은 교사들이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다. 그리고 목회는 바로 믿음으로 칭의와 중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통로이다. 근본적으로 이 목회의 핵심적인 주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이며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이상이 기독교 중심진리에 기초한 목회신학의 기본구조라고 본다. 이 기본적인 구조에 기초하여 목회의 목적과 방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한다.

2-2. 목회의 목적

칼빈에 의하면 목회사역의 목적은 “회개”이다.

복음을 전하여 죄가 용서됨을 알리는 목적은 죄인들이 사탄의 암박과 죄의 명예와 타락한 생활의 질고에서 끌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오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게 한다.⁶

웨슬리에게 있어서도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한 일에 힘쓰는 친 백성으로 변하도록 하는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는 요일 5:18의 말씀은 웨슬리와 칼빈에게 있어서 공동의 핵심진리인 것이다. 즉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데 있다.⁷ 따라서 구원을 받았으면 실질적인 변화가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여기에 기독교 진리의 구현이 있기 때문이다. 목회의 목적이 회개이고 회개는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 목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칼빈은 회개의 기본적인 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한다.⁸ 이 두 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칼빈이 제시하는 회개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⁹

첫째,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인데 이것은 외면적인 행위의 변화 뿐 아니라 영혼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6. Calvin, J., 『기독교강요』 3권 3장 1절.

7. 한철하, “2001년 세계한인신학자대회 관계논문,” ACTS.

8. Calvin, J., 3권 3장 5절

9. Ibid., 3권 3장 6, 7, 8절

다. 그런데 영혼은 먼저 그 옛 성질을 벗어버려야만 비로소 새롭게 변화된 행위를 낳을 수 있다.

둘째, 회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된다. 즉 회개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회개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 준다. 즉 회개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복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권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회개로 인한 의로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셋째, 회개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는 두 부분으로 성립된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첫걸음은 우리의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회개의 열매는 의와 공의와 자비이다. 이것은 종교적 도덕적 의무들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짐으로 가능한 것이다. 즉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으로 거룩함에 깊이 점길 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새로워져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칼빈에 의해 제시된 회개의 성격은 목회가 목적해야 하는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준다. 즉 목회는 기독교의 덕목에 맞는 새로운 행동을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영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목회는 영적인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¹⁰

2-3. 목회의 방법론

2-3-1. 방법론의 기초 : 회개의 위치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진정한 삶의 변화 즉 회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적에 대한 논의는 항상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10. 이러한 변화는 존 웨슬리의 올더스케이트 가(Aldersgate Street)에서의 회개의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Wesley, J., 『존 웨슬리의 일기』 김영운 역 (서울: 크리스챤라이제스트사, 1999), 70.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목회의 방법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려 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자식을 요구한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에서 회개를 어떤 위치에 두셨는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칼빈은 청의와 회개 즉 중생이 같은 것이 아니며 회개가 청의에 이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이며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¹¹ 그런데 이 청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본다. 청의에는 행위가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중생은 우리 삶의 변화 즉 행위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¹²

그러나 중생도 청의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작용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의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인한 행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¹³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기들이 선택된 것을 알게 하는 부르심의 표징인 것이다. 우리가 선행을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그런 선행도 하나님보시기에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⁴

칼빈은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중생은 구원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 즉 중생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자신과의 교제로 인도하시며 그 교제 안에서 보호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다. 아버지

11. Calvin, J. 3권 11장 2절.

12. Ibid., 3권 11장 6절.

13. Ibid., 3권 14장 19절.

14. Ibid., 3권 14장 20절.

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므로 신자들을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영으로 자신과 연결된 그들을 순결하게 만드신다는 것이다.¹⁵ 결국 회개 즉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청의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가능하다.

웨슬리도 칼빈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¹⁶ 우선 웨슬리가 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웨슬리는 청의가 우리를 실제로 의롭고 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것은 성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화는 어느 정도 청의의 즉각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의 구별된 선물이며 전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다. 청의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성화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청의는 성화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볼 때 모든 선행은 청의 이 후에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청의 이 후에야 선행들은 “진실한 살아 있는 신앙(a true and living faith)”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웨슬리¹⁷는 어떤 종류의 의가 되었던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죄의 힘으로부터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고 의지적인 죄들을 대적하게 되고 죄된 욕망의 경향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절식시키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웨슬리는 용서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

15. Ibid., 3권 17장 6절.

16. Wesley, J., "Sermon V : Justification by Faith," i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V (Peabody: Hendrickson, 1991), 56-59.

17. Wesley, "Salvation by Faith," Ibid., 11.

게 할을 강조한다. 우리를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칼빈이나 웨슬리는 모두 칭의와 회개를 구분하고자 한다. 즉 회개나 성화가 칭의와 함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화는 칭의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도 칭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다. 따라서 회개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회개의 위치는 목회가 무엇을 통하여 회개로 접근해야 하는 가를 가르쳐 준다고 본다. 즉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보여준다.

2-3-2. “믿음으로”

목회가 회개로 인한 삶의 참된 변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면 사역의 핵심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믿음에 이르며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문제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역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웨슬리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받아들여졌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적 확신이라고 한다.¹⁹ 이 믿음만이 구원의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용서하시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수난을 힘입어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자들로 다시 받아들여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곧 믿음이다.²⁰ 웨슬리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과 자기의 전적 부패에 대한 깊고 심각한 죄책감, 그리고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심으로 은혜로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얻었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선한 일

18. Wesley, “The Righteousness of Faith,” Ibid, 69.

19. Wesley, “Spiritual Christianity,” Ibid, 39.

20. Wesley, “Justification by Faith,” Ibid, 59.

에 힘쓰는 친 백성”으로 변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칼빈에 의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다.²¹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초로 삼는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식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화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지셨을 뿐 아니라 성결을 위하여 그리고 생명수의 원천으로서 보내지셨으므로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²² 즉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고 성화되어 가는 능력을 주심까지를 믿는 것을 포함한다.

칼빈과 웨슬리를 통해서 볼 때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특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며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를 느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믿음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칼빈은 기도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매

21. Calvin, J., 3권 2장 7절.

22. Ibid., 3권 2장 8절.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다. 기도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본질에 있다. 칼빈은 사람에게는 선(善)이란 것은 전혀 없으며 구원에 도움이 될 것도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은 곤란에 빠진 자기를 구해 낼 힘을 자기 밖에서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²³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실천이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더해 갈 수 있다.²⁴ 우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죄 용서의 경험을 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지식을 더해 갈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도와주시며 단지 말씀으로 달래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으로 지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 가고 또한 더욱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믿음으로”라는 목회방법의 기초는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자체로만 남아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로 이끌 수 없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회개로 나아갈 수 있으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믿음과 믿음의 실천으로서의 기도는 목회 방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2-2-3. 교회와 성령의 사역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믿음을 키우기 위한 사역의 실제방법들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믿음의 준거들이다. 즉 말씀과 성례가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역의 주체에 대한 것이다. 곧 사람을 통로로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23. Ibid., 4권 20장 1절.

24. Ibid., 4권 20장 3절.

칼빈은 믿음과 말씀 사이에 항구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믿음은 말씀에서 얻는다고 하였다.²⁵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행하신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신앙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잘못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인되고 지지되어야만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다.²⁶ 따라서 말씀은 믿음을 키워 가도록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증거이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내용들을 찾고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직책을 갖는다고 하였다.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그의 안에서 하늘 은혜의 보고를 제시하는 직책을 가졌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²⁷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며 우리를 자녀로써 키워 주신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시킨 후 세례를 통해 교회공동체에 우리를 속하게 하시고 그의 권속을 만드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생명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식을 주심으로써 아버지의 책임을 하신다는 것이다.²⁸ 목회에서 말씀 선포와 가르침이 중요한 만큼 성례 또한 중요하다. 현대 교회에서 성례가 형식화되거나 또는 왜곡된 의미로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목회실천의 핵심적 요소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성례에 대한 성경적 관심이 목회현장에서 전지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목회원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

25. Ibid., 3권 2장 7절.

26. Ibid., 3권 2장 31절.

27. Ibid., 4권 14장 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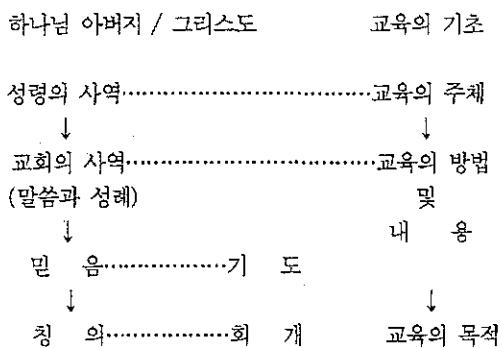
28. Ibid., 4권 17장 1절, 4절.

의 역사를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핵심은 “믿음”이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선생으로서 신앙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피조물이 되도록 하신다.²⁹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천 바가 되는 것이다.³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지성 자체로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나 그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신 것이다. 이것이 목회의 실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하겠다.

3. 기독교교육의 원리

3-1. 교육사역의 기본 구조

이상에서 칼빈과 웨슬리 목회신학의 중심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것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에서 요약되어 있듯이 기독교교육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또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칭의와 회개가 기독교교육의 목적이다. 이 목

29. Ibid., 3권 1장 4절.

30. Ibid., 3권 2장 7절.

적에 이르기 위해서 기독교교육이 택해야 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또한 믿음으로 회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믿음으로”가 규명이 되어야 회개에 이르는 기독교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규명될 수 있다. 칼빈과 웨슬리를 중심으로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믿음의 핵심은 복음이다. 이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이 기도이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실천될 때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을 증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다. 그리고 또한 성례를 성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에서 성례를 또한 교육방법의 핵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방법의 실천은 사람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상이 칼빈과 웨슬리 목회신학의 중심구조에 따라 세워 본 기독교교육의 기본 구조이다.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앞서의 고찰에 기초하여 교육의 주요원리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3-2. 기독교교육의 목적 확인

기독교교육이 일반교육과 구분되는 것은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국가나 사회와 같은 인간의 상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지고 기독교교육 또한 다양한 해석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기독교교육은 인간 변화의 근원을 인간 자체에 두고 인간의 자질을 함양시키거나 또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적 또는 과생적인 가치들에 교육의 목적을 맞추게 되었다. 따라서 개발 및 실행되고 있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은 기독교교육의 목적인 구원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칼빈과 웨슬리의 목회신학을 통해서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바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교육활동이 실제로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위해

서는 우선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삶의 변화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교회활동을 잘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삶의 진정한 변화란 무엇인가. 칼빈은 한마디로 회개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중생”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한다.³¹ 기독교교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변화는 단순히 세계관이나 기독교적인 인간관계의 기술 또는 문화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이다. 즉 새로운 생명을 입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이 학습자들 안에서 어떤 외적 활동이나 행동들을 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본질적인 변화의 측면을 놓칠 수 있다.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참된 변화의 열매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개란 단순히 인간의 각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면이 중요하다. 이것은 회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가능한 것임을 의미한다. 기독교교육에서 회개 즉 참된 삶의 변화로 학습자들을 이끌기를 원한다면 도덕적인 지침이나 또는 행동의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회개를 해야 하는 인간의 상태란 도덕적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신 인식과 관련이 있다.

칼빈³²은 회개로 인한 회복은 한 순간이나 한해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평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도들은 평생을 통하여 회개를 실천하며 이 싸움은 죽음이 와야만 끝난다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개라면 기독교교육 또한 평생에 걸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31. Ibid., 3권 3장 9절.

32. Ibid.

을 수료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이 해야 할 바인 것이다.

3-3. 기독교교육의 방법론적 기초

3-3-1. “믿음으로”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회개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회개의 위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기독교교육으로 하여금 잘못된 교육원리를 세우게 할 수 있다. 즉 믿음으로 이끌기보다는 외적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일종의 행동수정이나 또는 학습에 의한 종교적 조건화에 열중하게 한다. 회개의 위치에 대한 바른 이해는 교육의 초점을 행동 그 자체보다 “믿음”에 맞추어야 하며 학습자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맞추어야 함을 알게 한다.

회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신 승리와 또한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 또한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등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에서 그 목적인 회개 즉 참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가장 핵심적인 것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적인 덕목이나 기독교적인 문화 또는 전통 등은 교육의 내용에서 부차적인 것이다. 또한 우리가 어떠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부차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단순히 몇 구절의 성경암송이나 또는 성경 이야기의 전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그 다음에 실천되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독교교육의 목적이 믿음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실천하게 하는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믿음에서 자라 갈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배워도 실제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의 필요성과 법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관계가 견고해져 갈 때 믿음이 성장하고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기도를 핵심적인 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3-3-2. 교육사역의 통로들

기독교교육은 무엇보다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칼빈이 믿음을 키우기 위한 사역의 실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믿음의 준거들 곧 말씀과 성례이다. 교육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곧 교육의 준거이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교육의 주체, 실행자에 대한 것이다. 교회와 성령의 사역이 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a. 말씀

기독교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믿음을 키워 준다는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현대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 한철하 박사는 현대 신학의 최대 과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내용 하나 하나가 그 실재성의 차원을 되찾는 일이라 한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이를 위한 복음사역의 중대성을 되찾는 일인 것이다.³³

기독교교육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권위가 살아나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 기독교교육에서 많이 생각하는 문제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말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이다. 현대 신학의 영향 속에서 기독교교육 또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복음이 아닌 부수적인 진리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의 정체성을 견지하는 길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중심진리를 확증하고 그것을 교육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교육이 전정한 변화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말씀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이 말씀을 갖고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는 힘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 실제적인 유익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 성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되어 있다. 초대교회에서

33. 한철하,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신학공판’ 제안,” 13.

보면 단순히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를 하였고 떡을 폐었다. 여기서 가르침과 성례가 함께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 칼빈도 성례가 말씀과 같이 믿음을 키워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례는 믿음을 키워 주는 교육의 중요한 자료와 방법이 되어야 한다.

성례를 통해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교육계획 속에는 공동체를 통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지나치게 개인주의화, 지성주의화, 행동주의화되어 가는 현대 기독교교육에서 이와 같은 성례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즉 성례의 교육적 기능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 지성과 감성, 행동방식과 존재방식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례의 핵심인 성찬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상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 체화되는 경험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형식화되어 버리고 지나치게 상징화되어 버린 성례의 본래적 기능의 회복은 믿음을 키워 주는 하나님의 교육방법에 접근해 가는 것이라고 본다.

c. 교사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한 교육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 교육을 하시는³⁴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기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자녀들이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 받아서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근본적인 목적과 함께 하나님께서 교사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심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유익은 순종의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³⁵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은 말과 전도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명예를 매

34. Calvin, J., 4권 1장 1절.

35. Ibid., 4권 1장 5절.

지 못한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범한 교수방법에 매이게 하시며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교수방법 중에 이 부분은 현대 기독교교육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교육뿐 아니라 현대 교육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필요성에 대한 회의이다. 다양한 학습 기제들과 다양한 매체의 발달은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의 발달은 이러한 학습의 경향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다. 즉 교육이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현대 기독교교육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많은 교수자료들을 개발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교사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은 사람이며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신다. 따라서 교육실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즉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한 교육의 원리를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보다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키워가는 것이 기독교교육의 보다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3-3. 성령의 사역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방법론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모든 사역에서 성령의 작용이 없이는 아무런 결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칭의는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성화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고 한다.³⁶ 그리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령의 작용”이라고 하였다.³⁷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얼마나 성령의 역사함을 의뢰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기독교교육은 일반교육과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교육의 실질적인 주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 있는 것이다. 현대 기독교교육에서 모든 교육 환경과 학습자 및 교사의 특성, 교육내용 분석을 통하여 고도로 체계화되고 계획된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사용되는 가운데 상실되기 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께 의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어떤 세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교육의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는 교육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4. 요약 및 결론

칼빈과 웨슬리 목회신학의 중심구조에 비추어 살펴본 기독교교육의 원리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개 즉 참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에 기독교교육의 목적이 두어야 한다. 즉 우리 생명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기독교교육의 목적인 것이다.

둘째, “믿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믿음으로”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기독교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독교교육이 추구하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믿음의 실천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도 기독교교육의 과제이다.

셋째, 말씀과 성례를 교육방법의 기본으로 하고 교육활동을 시행 해야 한다. 잘못 선택된 교육방법들은 교육의 근본 목적과는 별개로

36. Calvin, J., 3권 2장 8절.

37. Ibid., 3권 1장 1절.

부수적인 효과들을 거두는데 그친다. 따라서 목적과 일관된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그 방법의 궁극적인 준거인 말씀과 성례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람을 통한 사역의 참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매체들이 다양해지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방법으로써의 사람을 통한 교육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정하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통한 교육의 의미를 탐구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활동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요청해야 한다. 기독교교육의 근본적인 주체가 성령님인 것을 인식하고 성령께 의지할 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글은 주로 칼빈의 목회신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웨슬리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기독교 중심진리에 기초한 목회신학의 기본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웨슬리 신학이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다루어지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웨슬리의 입장이 칼빈의 신학적 체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칼빈과 웨슬리로 대표되어지는 기독교 중심진리에 입각한 목회신학의 기본 구조는 기독교교육의 바른 정체성 위에서 교육의 원리를 논의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독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중심진리에 기초한 신학적 체계와의 관련하에서 교육원리들에 대한 고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한철하.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신학 공판’ 제안.” 『성경과 신학』 21권
_____.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집 제22권, 1997: 7-28.
_____. “신학의 과학성.” KETS 제 31차 발표회, 1998.
_____. “2001년 세계한인신학자 대회 관계 논문.” ACTS, 2001.
Calvin, J. 『기독교 강요(상)』 김종흡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_____. 『기독교 강요(중)』 김종흡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_____. 『기독교 강요(하)』 김종흡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Gangel K. O. & Sullivan C. “복음주의 신학과 종교교육.” 랜돌프 C. 밀러
편. 고용수, 박봉수 역. 『기독교 종교교육과 신학』 서울: 한국장
로교 출판사, 1998.
Wesley, J. 『존 웨슬리의 일기』 김영운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사 ,
1999.
_____.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V(First Series of Sermons
1-39).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1.
Without, Jim. *Christian Education and the Search for Meaning*.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1.